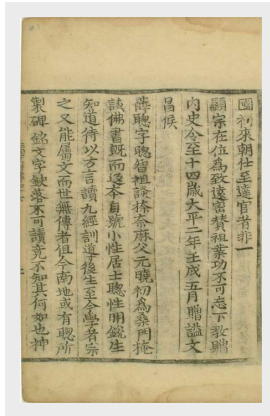


# 설총[薛聰]

## 신라의 문장가(文章家), 이두(吏讀)를 집대성하다

665~661년 사이 ~ 미상



삼국사기 설총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 1 개요

설총(薛聰)은 태종 무열왕(太宗 武烈王代, 재위 654~661) 시대에 출생하여 강수(强首, ?~?), 최치원(崔致遠, 857~?)과 함께 신라 3대 문장가로 꼽힌다. 그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법인 '이두(吏讀)'를 정리하고 체계화시켰다. 설총에 의해 집대성된 이두는 한문으로 쓰인 유교 경전을 풀이할 때 사용되었고 이후 신라 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2 출생과 가계

설총은 7세기 신라에서 활동한 승려인 원효(元曉, 617~686)와 당시 요석궁(瑤石宮)에 머물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기록에 따르면 설총의 증조부(曾祖父)는 잉피공(仍皮公, 또는 赤大公)이고 조부(祖父)는 나마(奈麻) 담날(談捺)이다. 그의 아버지인 원효는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高僧)으로, 공주와 결혼한 이후 승복을 벗고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라의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관련사료](#) 또한 원효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긴 대표적인 불교 학자였다. 그의 저술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에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원효의 전기(傳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원효불기(元曉不羈)」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설총의 출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효는 무열왕 딸로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다. 따라서 설총은 654~661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사료](#) 설총의 활동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6 열전6 「설총」에서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이 설총에게 높은 관직을 수여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관련사료](#) 또한 설총이 성덕왕 때에 불상(佛像)을 만들면서 불상의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대하여 기록한 조상기(造像記)의 내용을 직접 찬술(撰述)한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관련사료](#) 이를 통해 설총이 무열왕 때에 태어나 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 신문왕, 효소왕(孝昭王, 재위 692~702)을 거쳐 성덕왕(聖德王, 재위 702~737) 때에도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확인되는 설총의 활동은 주로 원효와 관련되어 있다. 우선 원효가 세상을 떠나자 설총이 아버지의 유골을 뿔아 소상(塑像)을 만들고 분황사(芬皇寺)에 안치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때 설